

담쟁이를 바라본다

글 · 이수갑 eohsg@kdemo.or.kr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기관지 <노동청년>

조반니노 과레스키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은 용서와 양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相生)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소설로 시종일관 웃음과 감동, 진한 인간애가 넘쳐나는 50년 장기 베스트셀러다. 요즘은 주된 독자층이 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이탈리아 중북부 시골마을 바싸에 사는 신부 돈 까밀로와 우직한 읍장 삐삐네가 주인공이다. 돈 까밀로는 신앙심이 깊고 자기 주장이 명확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신부이다. 하지만 성당 안에서 점잖게 강론이나 하고 성무만 집행하는 신부는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뛰고, 신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주먹질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그와 함께 등장하는 삐삐네는 읍장이며 동시에 자동차 수리공이다. 그는 정치적 열정이 너무 넘쳐 노동자 해방의 그날까지 인민을 위해 싸우며 불도저처럼 돌진하는 공산주의자다. 소설에서는 늘 둘이 티격태격한다.

필자에게 문규현 신부는 돈 까밀로와 삐삐네를 합친 모습으로 새겨져있다. 물론 그 둘보다 훨씬 인자하다. 부안성당에 재직하실 때 찾아뵈던 적이 있었는데, 주일 아침 성당 앞마당에 나와 할머니 할아버지 신자들을 일일이 꼭 껴안으며 맞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989년 여름 임수경의 무사귀환을 위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감옥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본격화된 그의 '공생활'은 그 후 새만금 개발, 부안 핵폐기장 문제, 대추리 미군기지과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늘 이 사회의 가장 첨예한 문제에 노정된 소외받고 억눌린 이들과 함께 한다. 그는 2천년 전 예수가 그랬듯이 자신을 낮추어 지렁이처럼 굼벵이처럼 오체투지로, 삼질로 뭉개지고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나라의 국토를 참회하듯 피땀을 흘리며 순례했다. 그런 그가 최근 단식 중 쓰러져 생사

의 갈림길을 헤맸다. 그를 생각하면 것처럼 용기있게 자신을 투신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죄책감과 함께, 그지없이 순정한 사람을 대할 때 우러나는 경외감으로 가슴이 답혀지고 희망마저 되살아나, 종종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

문규현 신부가 병상에서 들으며 힘을 얻는다는 노래 <담쟁이>를 소개한다. 도중환의 시에 부쳐 김정식이 노래했다.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모두가 말할 때 /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 개를 이끌고 /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오체투지 할 때 그는 아마도 담쟁이의 심경이었으리라. 역사의 새 길을 여는 민중들의 질긴 생명력을 담쟁이에서 찾아본다. 담쟁이처럼 무리지어 넉쿨지며 절망의 벽을 넘고 반노동과 착취의 질곡을 넘어 사회정의와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 50여 년 애써온 이들이 있다. '지오씨' (JOC)라 불리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노청) 사람들이 그들이다.

1958년 11월 16일 서울교구지부를 모체로 탄생한 한국 지오씨 50년의 역사는 노동운동 불모지에 수용된 JOC 정착기 (1958~1967년), 6월항쟁 이후 군부독재 정권 하에서의 노동자 복음화 활성화 시기 (1968~1986



가노청 회원들의 대우어패럴 연대투쟁 장면(1985.6.28) 오른쪽에서 3번째가 이창복 선생이다.



광주교구연합회 등 10개 연합회로 구성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탄압대책위원회'의 소식지. 그들은 가노청에 대한 블랙리스트 철폐와 종교탄압을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1983.12.20)



12월에 출간되는 JOC 관련 서적 『한국 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

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노동자 복음화 방식에 관한 갈등기 (1987~1992년)를 거쳐, 문민정부 이래 JOC 국제협의회(CIJOC) 중심 노동자 복음화 시기인 현재에 이른다. 1971년에 결성된 한국가톨릭농민회(가농)도 1966년의 JOC 농촌청년부가 발전한 것이다.

그들은 설립자인 까르딘 추기경이 품었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루카 4, 18-19)를 이상으로 하였다. 까르딘은 1915년 11월 독일군이 자신의 조국 벨기에를 침공하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독일군에 협조한 이들을 ‘매춘’이라고 준열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 자신이 직접 대독항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연합군에 가담하여 점령군에 맞서 싸우도록 지원하였다. 까르딘은 구속과 석방과 재투옥을 당하며 민족과 함께 불의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JOC의 존재와 자기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했다.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활동하던 JOC 출신 노동자들이 1968년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으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JOC가 정권으로부터 공산주의단체로 매도당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은 “억눌리고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진 연약한 소녀들을 비롯한 JOC 회원들에게 존경을 표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라고 그들을 적극 지지했다.

지오세 역대 회장을 역임했던 정인숙, 이창복, 윤순녀와 인선사 유령노조 사건 당시 인선사노동조합 정상화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JOC 전국본부 이철순, 원풍모방의 박순희 등이 시대의 어둠을 타고 넘는 지오세의 담쟁이들이었다. 또 홍순권처럼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따른 이도 있었다. 광

주항쟁 당시 홍순권은 시민군과 함께 도청을 지키다가 계엄군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1979년에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세차장에서 일하면서 광주 북동 지부에서 JOC 활동을 시작하였다. 광주항쟁이 발생한 초기부터 참여하여 굶은일을 수행하면서, 시신을 염습하는 일도 했다. 그는 JOC 회원들과 도청 취사반, 수혈반 등으로 항쟁에 참여하였다가, 1980년 5월 27일 도청 앞 상무관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독재정권과 기업의 노동자 탄압과 착취에 대해 함세웅 신부는 “1983년은 이리의 태창메리야스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에 대한 해고와 관련, 전주교구의 사제단이 일체가 되어 미사, 철야농성, 항의시위, 단식기도 등으로 교회의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고 노동자, 특히 신자 청년들을 위해 온힘을 기울였던 해였다. 이때의 교회는 참으로 약자의 어머니, 노동자들의 벗, 가난

한 이들의 보호자, 은신처였다.”고 회고했다.

문규현 신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 같지만, 거기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된다고 하며, 세상을 위해 투신하는 가운데 하느님이 계시고, 그 삶이 희망이 된다고 말한다. 때마침 JOC 50년 역사를 담은 책 『한국 가톨릭노동청년회 50년의 기록』이 12월 중에 출간된다. 그 책의 곳곳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헌신하며 절망의 수렁에서 희망을 일구는 이들의 모습을 만날 것이다. 세상은 이런 이들이 있어 절망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료관에는 이 책을 만드는데 기초자료가 되었던 ‘강화도 섬유노조사건 보고서’, JOC 정관, 회칙, 기관지 <노동청년>, 각종 성명서, 관련자 구술 등 JOC 관련 사료가 4백여 점 소장되어있다.

본격적인 겨울이다. 삭풍에 잎을 떨근 담쟁이를 보며 루신의 말을 떠올린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도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신의 <고향>에서)